

알루미늄 호일 고급화 통한 성장형 기업 목표

애사심 바탕으로 한 사원지주 회사로 지속 발전



조 성 중
(주)서신 대표이사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애사심과 회사 충성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을 뿐 아니라 최고 경영자와 상사에 대한 믿음도 희박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의 한 직장 평균 근속기간이 7.08년에서 지난해에는 6년으로 급감했고 95~97년 68.8%이던 직업유지율이 97~99년(IMF 기간)에는 54.5%로 낮아지는 등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마인드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회사의 발전을 이끄는 기본적인 원동력은 직원의 회사에 대한 남다른 애사심일 터.

전 직원 간 남다른 신뢰감 형성과 애사심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는 (주)서신(대표이사 조성중)을 찾았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하고 있는 (주)서신은 30여명의 직원들과 대표이사가 '우리는 하나'라는 단합정신을 바탕으로 고객감동을 실천하고 있는 그라비아 인쇄 전문 업체이다.



▲ (주)서신이 생산하고 있는 아쿠르트 제품 은박지 캡 및 LID용 은박지



▲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주)서신

1998년 전신(前身)인 서신물산(주)이 부도하면서 1999년 5월 재탄생하게 된 (주)서신은 전 사원출자로 설립한 사원지주회사로 자율적이며 역동적인 회사를 목표로 품질, 가격, 납기에서 고객 감동의 실천 의지를 펼쳐나가고 있다.

졸업 후, 서신물산에 창업 멤버로 입사해 포장과 인연을 맺게 된 조성중 사장. 그는 1998년 서신물산의 부도 이후, (주)서신으로 재탄생되어 대표이사 직을 맡기 되기까지 적잖게 망설이고 고민했었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그는 전

사원의 지주회사로 재탄생한 (주)서신을 바라보며 “대표이사 아닌 대표사원”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져 현재까지 회사 발전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25년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기능인을 중심으로 전 사원출자로 설립한 (주)서신은 야쿠르트 은박지 cap, LID용 은박지를 비롯해 담배 내 포장용 접착 알미늄 박지, 초컬릿 포장용 은박지 등을 생산하면서 롯데알미늄, 삼아알미늄, 한국야쿠르트, 대한은박지, 남경 등에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납품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야쿠르트 은박지 cap은 1980년대부터 홍콩, 중국에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는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등지로 꾸준히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다.

1999년 5월 설립 이후 2000년도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주)서신은 이듬해 44억원, 2003년 60억원, 2004년 76억원 이상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94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이루는 등 매년 25%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 올해도 전년 대비 26.85% 가량의 매출신장을 달성할 것

SEOSHIN

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서신은 기술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ISO 9001 : 2000 규격인증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는 목표로 연구 개발하여 해외규격 인증(FDA) 획득을 통한 수출선 다변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2004년 9월에는 기장급 사원이 참가, 중국 광저우 무역 박람회에 제품을 출품하고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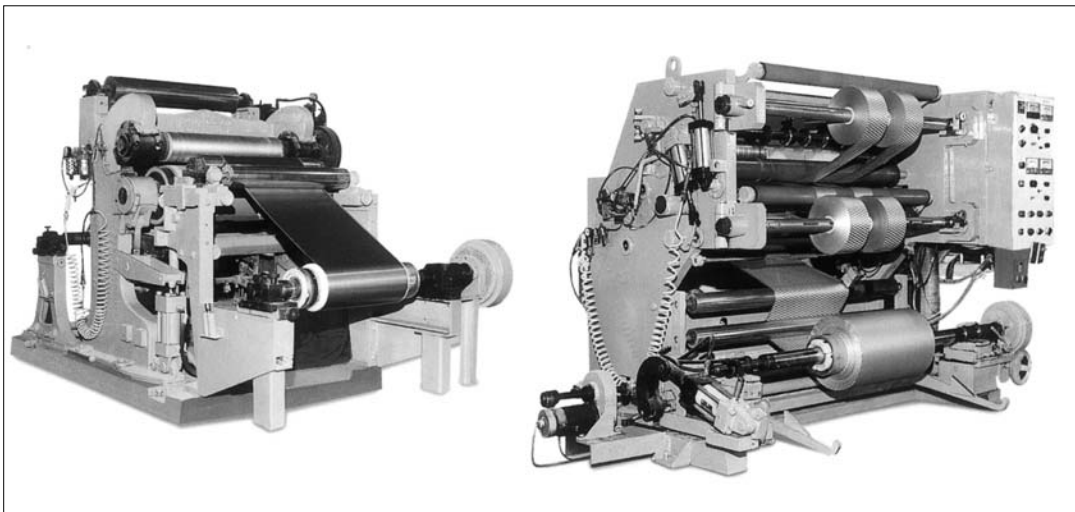
관했으며 지난 해에는 중국 상하이 포장박람회 출품, 참관하는 등 해외 포장산업에의 수출활로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서신은 중소기업 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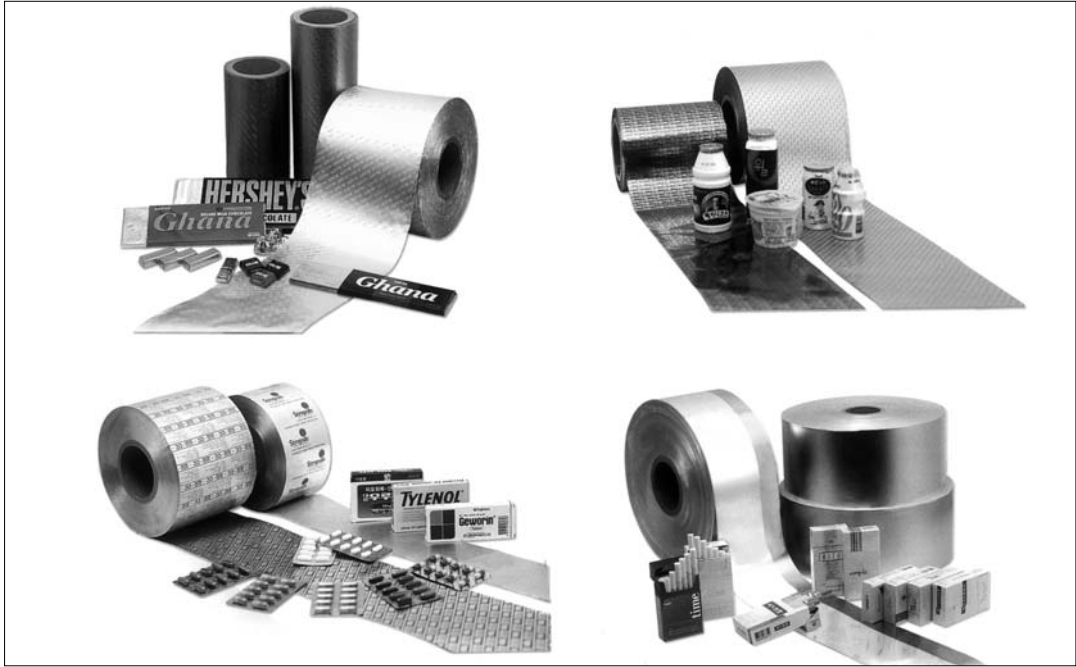
2000년 9월에는 '식품용기의 뚜껑용 포장필름'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하는 등 알루미

늄 호일 가공 전문업체로서의 기술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력하는 한편 사원의 교육 및 해외 연수를 통한 인재 양성과 대외기술자원(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과 대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한 신기술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사원지주회사로써의 강한 결속력은 조성중 사장의 자랑이다. 조 사장은 전 사원들의



▲(주)서신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기계



▲ (주)서신의 생산제품들

회사생활에 편의를 고려하는 한편 장학금 제도와 사원가족 생일축하 제도 등 복지제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그는 “전 직원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이익금이 생길 경우, 30%는 지주들에게, 30%는 직원들에게, 30%는 회사에 남기는 ‘삼분법’을 철칙으로 삼고,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 사장의 직원 복지와 직원들의 애사심이 바탕이 되어 (주)서신의 직원 이직율은 거의 전무하다.

1970~80년대 고부가가치였던 포장산업이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다는 조성중 사장.

금번 (주)서신은 (사)한국 포장협회의 신입회원으로 가입, 전 회원사들의 협력으로 국내 포장산업이 지속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포장협회 110여개 회원사 모두가 상생하며, 윈-윈(win-win)해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하는 그는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주)서신의 발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전신(前身) 회사의 부도에 굴하지 않고, 애사심을 바탕으로 (주)서신을 재탄생시키고, 지속 성장 발전시켜 온 조성중 사장과 30여명의 직원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작지만 강한 회사(주)서신은 알루미늄 호일의 고급화를 이뤄나가며 성장형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ko]

박초혜 기자